

會訓
 ● ● ●
 創 奉 誠
 意 任 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 韓 國 漁 港 協 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인남동103번지
 TEL. 3673-2851~3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e-mail : kfpa8769@chollian.net

[月刊] 第144號

THE FISHING PORT NEWS

1999年 12月 25日(土曜日) [1]

漁港공사 조기발주 태풍진로권 우선

내년 집행분 67% 1분기내 집행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집행할 어항공사 중 67%를 내년 1분기 중에 집중 발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에 집행할 52건 어항공사(1,411억원 규모) 가운데 67%인 30건(950억원)을 내년 1분기에 일제히 발주할 계획이며, 특히 태풍진로권에 위치한 어항과 규모가 큰 공사를 중심으로 조기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강원도 양양수산물 방파제공사와 전남 여수 남도항 방파제공사 등 30건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으며 이중 내년 1월에 13개항을 발주하는데 이어 2월 16개항, 3월 1개항을 각각 발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어항건설공사 설계지침을 지방청에 시달, 항별 예산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조기발주 대상공사에 대해 우선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잔여사업은 분기별 예산

배정 및 지방청의 설계가 나오는 대로 4월 이후 단계별로 발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재해로 인한 시공 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기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강화

2000년 예산에 1백억원 계상

해양수산부는 육상 및 연안의 각종 폐기물로부터 바다를 살리기 위해 각 분야별 해양폐기물 종합처리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실시중인 연안

폐기물 오염실태조사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우선 순위를 정해 수중폐기물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내년 예산에 폐기물수거처리사업비를 올해보다 10배 증액된 100억원을 계상하고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

리하기 위해 전용 소각장 및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저무는 해는 내일 다시 떠오르고, 그 해는 이제 새 천년의 해가 될 것이다. 물론 어제 떠오른 해와 오늘 떠오른 해가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그래도 새 해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지나간 천년의 매듭 위에 새 천년의 출발, 다시 말해 우리의 꿈과 희망과 의지를 담아 보려는 생각 때문 이리라.

올해 우리나라 수산업은 연초 1월 22일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협정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차치하고 우리 수산인들에게 안겨준 의식은 수산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다른 말로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경영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수산업은 자칫 도태될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와 다를 아니다.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약 비준 132개국의 일원으로 1996년 이미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 처음으로 한·일어업협정이 서있고, 앞으로는 한·중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우리의 수산업 환경은 앞서 말한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일본 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제 촘촘히 선이 그어져 과거와 같은 융통성 있는 그런 어획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어로 관행으로 과연 수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수 폐수로 파괴해진 연안 해역을 되살릴 수 있겠는가,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묘안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수산업 부문 역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사실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수산업 환경은 우리가 당을

폐기물 저장·분리시설을 연안지역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화장비 및 정화기술개발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해양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 개발' 용역 등을 통해 다기능 첨단 정화선박 및 부유폐기물 수거망 등 과학적 장비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권역별 폐기물관리체제도 개발키로 했다.

또한 육상으로부터 폐기물

의 해양유입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하천 유출 폐기물 차단막을 개발 보급하고, 선박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구실명제 도입 및 선박내에 폐기물 분리시설을 설치토록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따른 해양폐기물처리를 위해 재해 복구비 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해역관리청의 폐기물 정화능력이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도착해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지금 우리 어항인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이다

바다도 살리고, 어업인도 살리고, 수산업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 뿐인데 그 출발선은 역시 어항어촌 개발이라는 게 결론이기 때문이다.

새 천년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쩌면 새 천년 첫 해가 이에 관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이다.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고 그 변화를 극복해야 하는 게 오늘 우리 어항인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무인 것이다. 어쩌면 시대의 소명인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서 어항어촌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와함께 수산인은 물론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게 바로 새 천년 우리 어항인의 할 일이다.

어항인 자신부터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구조조정의 당사자가 되어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선진어항 어촌과 관련한 기술개발, 연구투자, 국제회의 선봉에서 어항인이 되어야 한다.

한가지 다행스런 일은 우리 어항인들이 이를 손쉽게 해낼 수 있는 저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황무지나 다름없는 어항분야에 어항협회를 설립하고, 온갖 고초를 이겨내어 오늘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위대한 열매를 맺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한 해 여려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2년 전 쓰라린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노력도 많이 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 이제 모든 어항인의 마음을 한 데

모아 밝고 아름다운 새 천년의 꿈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해, 지난 천 년을 회고해 보자.

그리고 눈을 뜨고 다가올 한해, 다가올 새 천년을 준비하자.

어항항만 설계용역 제한 동일본야 공동도급 배제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어항공사의 설계용역사업에 동일본야의 공동도급성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항만공사의 설계능력 제고를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설계자문위 심의대상

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앞으로 항만 및 어항공사의 기술용역사업에 동일한 성격의 구성원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방파제 등 상당부분의 항만 및 어항공사에 동일한 성격의 구성원이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용역과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진행중인 항만 및 어항건설기술용역관리지침제정안과 설계자문위원규정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말까지 방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설계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 어항 및 항만건설기술용역관리지침과 설계자문위원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제·개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의 설계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관리청공사의 설계자문위심 의대상을 현재의 500억원에서 정부공사와 마찬가지로 3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용역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자문절차는 현재의 공사착수, 중간, 마무리 등 3단계에서 이중 한번 이상만 받으면 되도록 절차를 완화키로 했다.

일출행사 후 '21세기 해양선언' 발표

해양수산부 2000년 맞이

해양수산부는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2000년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거창한 행사보다는 이웃과 함께하는 조촐하고 겸손한 2000년 맞이 행사계획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분 500만원으로 홈페이지(momaf.go.kr)에 '새천년 보물섬을 찾아라'라는 장보고 관련 게임을 실음으로써 젊은층의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2000년 첫 사무식날에는 새천년을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로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직원 2,000명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계획을 세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에서 2000년 1월 1일 해뜨기 전에 한·일 EEZ경계수역에서 양국지도선이 만나 기념품을 교환한 후 합동 순시를 실시하여 우호적인 한·일어업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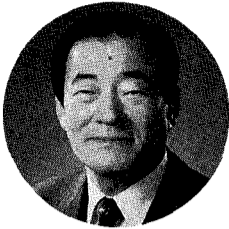
이와 함께 관련업계인 현대상선에서는 금강산관광객(풍악호)을 대상으로 동아일보·MBC와 함께 2000년 1월 1일 독도인근해역에서 '독도 해맞이 행사'를 치를 계획이며, 해양수산부에서는 풍악호 선상에서 Ocean Korea 21 선상세미나를 열고 2000년 1월 1일 동아일보와 MBC가 주관하는 일출행사 후에 '21세기 해양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

정

'21세기 해양수산 정책방향' 주제발표



鄭相千 해양수산부장관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10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추진위원회를 주재, 12일에는 부산방송 시사진단 프로에 출연 '21세기 부산, 바다목장화 사업'을 주제로 토론, 15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21세기 해양정책포럼에서 '21세기 해양수산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손정식 한국어협회장은 12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연합 농림해양수산분과 정책위원회에 참석, 12월10, 11 양일간 숙명여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미래산업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 15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21세기 해양정

책포럼'에 참석, 20, 21 양일에는 상의클럽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99년도 특별세미나 '새천년의 비전 :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건설'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2월12일에 방송된 부산방송 시사진단 프로에 출연 '21세기 부산,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 토론.

▲최상욱 남화토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3일 5·18기념 소공원 개원식에 참석, 7일에는 광주지방법원 민사가사조정위원회에 참석, 8일에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의회 99년도 정기총회에 참석, 17일에는 목포문화방송·사단법인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주최 '사랑의 바자회'에 참석, 21일에는 전남 제2건국 국민추진위원회 창립1주년 기념식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2월10일 제16회 청소년선도대상 시상식에 참석, 16일에는 광주방송 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 27일에는 송원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2일 대한건설협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7일

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 13일에는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99년도 임시총회를 개최, 22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2월6일 한국능률협회 경영자 대상 시상식에 참



■ 손정식 한국어협회장은 12월17일 본회 회의실에서 어항청소선 선장·기관장 회의 주재, 올 한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는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위원장으로 추대, 7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동회의에 참석.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국립수산물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울산시험장장 이종관 △"서해수산연구소 태안시험장장 장계남 △"남해수산연구소 여수시험장장 박미선 △"남해시험장장 위종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흥수산물관리소장 정준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수산물관리소장 이의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수산물관리소장 황경열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보령수산물관리소장 허충

의 속

▲조흥제씨(주식회사사건설회장)의 장남 춘래 군이 오는 1월 14일(금) 오후 1시 삼성동 공향터미널에서 화족을 밝힌다.

주소 변경

▲송중석씨(금광기업주식회사 상무이사)는 최근 자택주소를 광주시 북구 일곡동 롯데아파트 106-1701호로 변경했다. 전화번호:(062) 575-0631

의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사장 황광웅)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강원복)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인규)
 ■개인
 ▲김봉래씨(전 강원도 동해출장소 수산국장)
 ▲김영수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이사)
 ▲민성규씨(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서기덕씨(전 대건중기 대표)
 ▲유상호씨(주식회사 경진엔지니어링 이사)
 ▲황덕환씨(부흥건설주식회사 상무이사)

염해 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 개발

물리·화학처리 병행 내구성 향상

염해나 중성화 등으로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결함요인별로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병행함으로써 구조물의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킨 콘크리트 보수공법이 개발됐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은 손상요인에 따라 개별적인 처방이 가능하다는 외국산에 의존해온 각종 보수재를 국

산화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를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쌍용엔지니어링과 쌍용양회공업이 최근 건교부로부터 신기술지정을 받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은 임시방편적 처리에 그치고 있는 국내 콘크리트 보수기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철근부식, 단면파손 등 손상요인별 처

방을 통해 구조물의 내구성은 물론 시공품질을 대폭 개선시켰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방법은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를 이용한 외부적인 단면복구 수준에 그쳐 구조물 내부의 성능을 개선시키기는 한계가 있었다.

또 비싼 외국산을 이용한 보수재의 사용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2~3년내에 재시공을 해야하는 등 시공품질면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에 착안한 쌍용기술진은 손상부위별로 개별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성질의 보수재를 개발함으로써 이전 기술의 결함을 해소시켰다.

항만공사비 강제예치제 민자 활성화 위해 폐지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적용중인 공사소요비용의 강제예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최근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하



남해안 수중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성공적 종료

해양수산부가 10억원을 투입, 추진한 남해안 수중침적폐기물 실태조사 및 여수 국동항과 통영항에 대한 정화사업이 성공리에 종료됐다.

이 사업을 맡은 한국어협회는 남해안의 16개 항만, 28개 어항 및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하구 등에 대한 쓰레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안의 쓰레기 분포도를 작성하고 이를 D/B화하여 쓰레기 실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오염정도가 심각한 전남 여수시 국동항과 경남 통영항에 대한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실시, 국동항은 계획물량 467톤보다 32톤 많은 499톤, 통영항은 609톤 계획에 639톤을 수거·처리하였다.

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민자항만사업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 공사소요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자

유치활성화를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민자사업이나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발주하는 비관리청 항만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에 따른 사업차질을

막기 위해 사업허가단계에서 보상 등 공사관련 제비용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민자유치가 부진함을 면하지 못함에 따라 이같은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건설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

정부는 공공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업체의 채산성 보전을 위해 시설공사 낙찰률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키로 하는 등 현행 적격심사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앞으로 입찰담합을 엄중 처벌하되 그동안 적발업체는 입찰담합관행 및 타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무리하게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공공공사의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기반 악화 등 업계의 당면애로를 해소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한 공사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가 적정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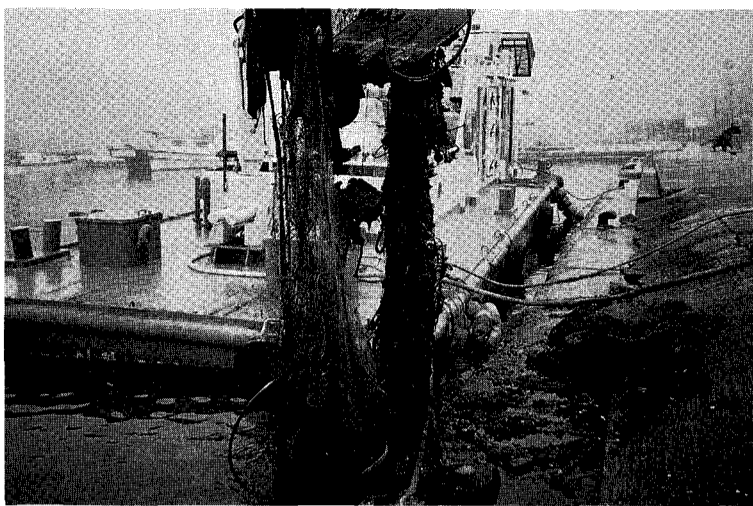
격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적격심사기준의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필요시에 적격점수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적격심사제도의 경우 재해율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신인도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공종별로 평가를 강화하며 재무구조와 수익성 등 경영상태의 평가를 재조정키로 했다.

대신 성실시공과 적정공사비의 확보가 하도급업체까지 확대되도록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감리·감독을 엄격히 하며 공사이행보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어항청소선 오페물 96만3,223kg 수거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지속 추진



373kg, 침전물 47만6,350kg, 항행장애물 39만6,500kg 등 총 96만3,223kg의 오페물을 수거했다.

특히 여건이 어려웠던 올해는 어항청소선 승선원 전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출동일 수 153%, 수거량 121%의

어업인들의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바다환경보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지 어항청소선 승선원과 협회 홍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올해 동안 제1·3종어항과 연안 그리고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과 제2종어항에 729일간 출동, 부유물 9만

실적을 거양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어항청소선의 청소활동에 비해 아직

어항공사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분할발주가 효율적인 공사는 제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어항공사의 경우 공사의 성질이나 여건상 분할발주가 효율적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고 공종의 복잡 등으로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년도 예산요구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어항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건설중인 어항의 경우 안전사고방지시설을 공사설계시 반영, 설치토록

하고 이미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시 반영해 집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어항·항만설계기준 제고를 위해 내년중 선진국수준의 독자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열린 '항만건설관계관회의 및 건설기술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항만설계·시공기준 및 항만기술 선진화방안과 2020년까지의 장기항만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항만건설사업의 예산절감 및 국내 항만관련 시공·엔지니어링업체의 외국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선진국 수준의 독자적인 항만·어항설계기준을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세기 해운항만 여건변화에 대비키 위해 장기항만물동량 수요에 부합되는 오는 2020년까지의 전국 항만개발기본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10개 권역 해양관광도시 개발

정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0개 권역에 거점 해양관광도시를 개발키로 했다.

또 초대형 부유식 인공해양공간을 조성, 해상물류기지 및 해상도시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21세기 해양개발 청사진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0-2030년)

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전국연안을 생태연안, 환경관리연안, 친수연안, 산업기반연안, 수산연안 등 5대 기능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는 2010년까지 환경관리해역을 9개에서 30개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다기능 종합어항과 선진현 거

점어촌을 본격 개발하는 한편 육지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초대형 부유식 인공해양공간을 조성, 오는 2010년 세계박람회단지 및 해상물류기지, 해상도시 등을 활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항만, 해운, 수산, 해양환경, 해양개발 분야 등 7개 추진전략과 21개 정책과제가 제시돼 있다.

“기르는 어업으로 어가소득 제고”

중국과 자원조성센터 설립 추진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부경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1세기 해양수산정책 방향' 주제 초청강연에서 “기르는 어업을 육성, 연간 1,700만원 수준인 어가소득을 고부가가치화 하여 2011년에는 4,3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성 및 관리로 자원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양국 수산자원조성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중국과도 같은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천 장관은 이어 “한일 수역의 수산자원 공동

또 “EEZ경비 강화를 위해 2003년까지 1단계로 예산을 대폭 투입해 대형함정 18척, 항공기 8대, 방제정 15척 등을 증강시키겠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입찰현장에서 즉시 발표하기로 했다.

또 등록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시설공사나 용역업체의 등록시에 징구하던 등기부등본 제출의무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건설(7,822억원) 가운데 75%인 54건(5,867억원)을 1분기중 발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신항만 건설사업이나 일반항 건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조기발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은 최근 조달서비스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확정, 지난 10일 이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사업별로는 부산신항 방파제 및 작업부두 등 방파제공사 10건을 비롯 울산항 8부두 안벽 등 부두개발사업 5건, 부산신항 준설 등 준설사업 3건, 울산항 6부두 컨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시설공사나 용역, 내자, 외자 분야별로 등록을 한 업체의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로 제한한 뒤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갱신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효기간 자체를 없애 한번 등록을 하면 변경사항이 없는 한 계속 시설공사나 용역 또는 구매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했다.

감천항 동북아 중심 수산물류기지로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준공

부산 감천항 원양어선전용부두 및 수산물유통가공단지가 지난 29일 준공되었다.

민자유치에 따라 지난 90년 19개 원양업체와 수협중앙회가 공동참여, 순수민자 400억원을 출자해 원양어업개발(주)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됐다.

수산물유통가공단지가 완공됨에 따라 생산·제조·유통·가공의 계열화를 통해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수산물의 안정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진화된 수산물 유통·가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동북아 수산물 중심물류기지화로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양어업전용부두는 안벽 및 호안 1,458m에 만톤급 대형어선 9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도로 3,055m와 5만2천평 규모의 배후단지를 갖추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원양어업개발(주) 김응수 사장이 은탑산업훈장, (주)동영골드프라자 김재은 사장·보성냉장 김경은 사장이 산업포장을, 그리고 삼호물산(주) 조강호 회장·동남어업(주) 윤명길 사장·한성기업(주) 최철희 부사장 등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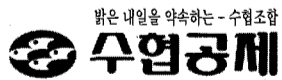
항만공사 조기발주 고용증대 도모키로

해양수산부는 건설업계의 자금난 완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키 위해 내년에 집행될 주요 항만공사를 1분기중 집중 발주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사업 조기발주로 고용증대효과를 거두기 위해 내년에 집행할 주요 항만건설공사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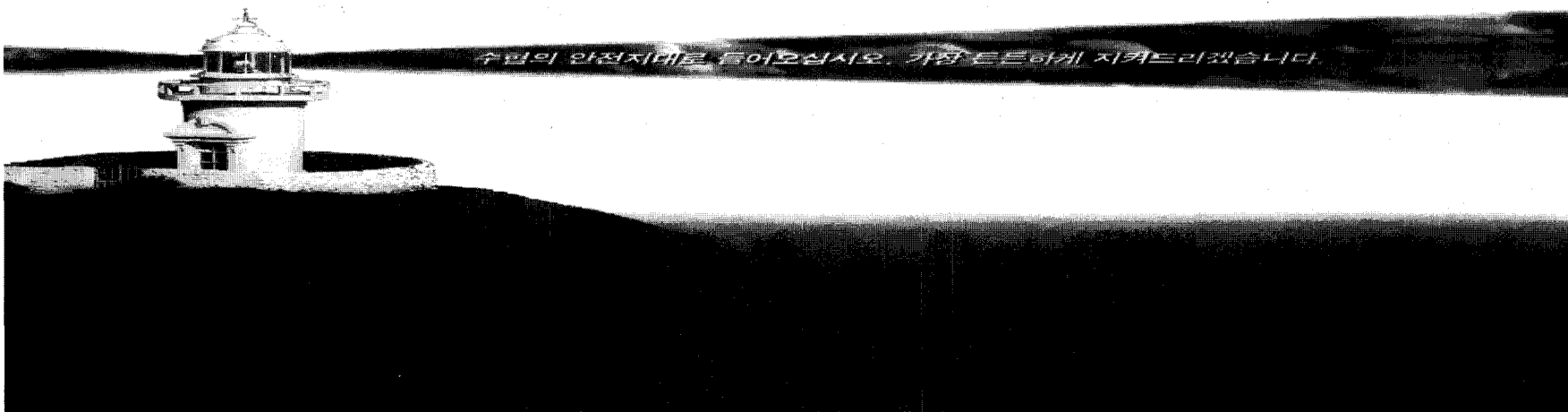
배후단지에는 개별 주주사들이 2,731억원을 들여 14개소 38만톤 규모의 냉동·냉장 시설공사를 추진중이며, 현재 15만톤급 규모의 냉동·냉장 가공시설 4개소가 완공돼 가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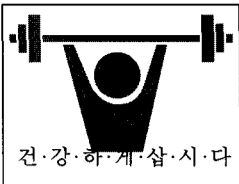
감천항 원양어선전용부두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정기 진단서 OK라도 안심하면 안된다

'치료보다도 예방'이란 말이 있지만 이는 근대 의학의 사고 방식의 주축이다. 사실 육체의 예방 주사나 렌트겐 검진 보급에 의해서 수많은 전염병이 극복되어졌다. 일본에서 불치의 병이라 불리던 결핵도 집단 검진을 철저히 하고 항생물질을 이용함으로써 사인의 제1위에서 하위로 떨어졌다. 그 대신 부상한 것이 암이나 심장병 같은 소위 성인병이다.

현재 성인병에는特效약이 없다. 그래서 예방하는 의미에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집단검진이나 단기 정밀 검사에 의한 진단을 과신하면 커다란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예방 의학은 검진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렌트겐 사진의 체크를 중시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대개 경험이 적은 의사가 한 사람의 렌트겐 사진을 불과 1분 정도에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진단에 의한다면 비록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

특히 암 검사의 경우 한 장의 렌트겐 사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없어도, 잘못 보고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요즘도 집단 검진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위암으로 사망한 적이 있어서 고소

를 하는 사태까지 가는 일이 있다.

법정에 제출된 위의 필름에는 확실히 암이라고 알 수 있는 상이 찍혀 있어서 의사의 부주의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집단 검진으로 암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 만나질인 3시간의 짧은 정밀 검사도 집단 검진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리고 문제는 일단 검사로 '이상 없음'이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 안심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몸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는 자각 증상이 있는데 검진이나 정밀 검사에 괜찮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는 것 같은 일이다. 결국 단기 정밀 검사라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암의 예를 들면, 우선 위 렌트겐 간접 촬영시에는 초기의 작은 암을 포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완벽을 기대한다면 숙련된 전문의에게 직접 촬영의 위투시 내시경 검사를 받고 천천히 검사를 받도록 해야한다. 이런 정도의 검사를 1년에 한 번 해 두면 위암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단기 정밀 검사라면 몸의 각 부분에 대해 정밀 검사를 모두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상업적이다. 확실히 단기 정밀 검사로도 검진을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마냥 안심하는 것만큼은 금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38] 第3章 基礎工

- ④ 법포
 - a. 다른 매트에 비하여 가볍다.
 - b. 비교적 항장력이 있고 잡아찢기에 강하다.
 - c. 적당한 신도 및 내마모성이 있다.
 - d. 노과성능이 높고 토사세립분의 포집이 좋다.
 - e. 투수성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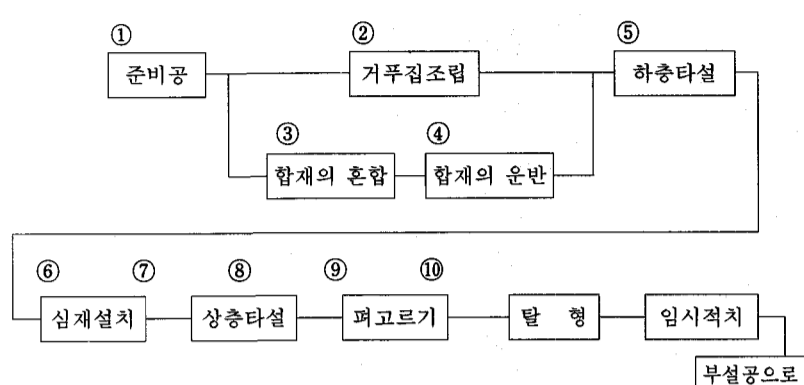


그림 3.6.1 아스팔트매트 제작공의 표준적인 시공순서

아스팔트매트의 대부분은 케이스스 지면의 마찰층대에 이용되고 있고, 거의가 케이스스 제작시에 일체시공한다.

케이스스 제작시에 일체시공하는 매트류에는 고무계매트도 있으며 증가경향에 있다. 케이스스 제작시에 일체시공하는 시공방법은 후술한다(제6장 케이스스공 참조).

3.6.2 아스팔트매트

- (1) 표준적인 시공순서

아스팔트매트 제작공의 표준적인 시공순서를 그림 3.6.1에 제시한다.

어항공사에서 아스팔트매트의 사용은 케이스스 지면의 마찰층대용으로 제작시에 일체시공하는 것이 많다. 또 부설방법은 합관수지계매트와 거의 동일하므로 3.6.3 합관수지계매트에 서 기술한다.
- (2) 시공방법

제작은 콘크리트면 등의 평탄한 기

초위에 매트의 두께와 같은 두께의 거푸집을 짜고 노반지를 펴 삼밭줄(마강)이나 와이어가 중앙부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2층으로 나누어서 아스팔트 합재를 타설한다. 거푸집은 제작도중에 이동이나 부상하지 않도록 앵커볼트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합재의 타설은 미리 180~220℃로 가열된 것을 사용하고, 먼저 하층을 타설한다. 다음에 심재 및 들어올릴 로프 등의 보강용재를 설치한 뒤, 상층을 타설하는 것으로서 시공시기도 감안하지만 하층의 합재온도가 50~60℃가 된 때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재의 타설에 있어서는 하층 및 상층이 일체가 되도록 매트 두께 등의 규격이 소정의 형상치수가 되도록 레이크(rake) 등으로 꼼꼼히 고

르기 마무리를 시행한다.

탈형은 합재온도가 40℃ 전후가 된 때에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틀을 사용하여 시행한다. 날씨가 추울 경우의 작업에서는 급냉·경화된 매트가 갈라지거나, 더울 경우에는 작업도중 매트가 부드러워져서 들어올리는 로프가 빠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 따라서 들어올리는 작업에 있어서는 급작스런 크레인 조작으로 충격을 주거나 장시간에 걸쳐 매달은 상태로 방치하는 일은 절대로 피하는 등 주의깊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제작된 매트는 임시적치장에서 10매 정도씩 겹쳐 쌓아놓는 것이 보통이나 매트사이로 돌가루나 모래를 뿌리는 등 매트끼리의 부착을 방지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99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해당

기본준비서류
① 99년도 중도입사자 경우 당해년도 전근무지가 있는 사람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1부
* 서류 미제출시에는 세무서

로부터 개별통보(가산세 부과) 원 중 가족사항 변동, 주소지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 전근무지가 없는 사람과 기존사

참고사항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 소득(직장에서 갑근세 등을 원 천징수 납부)이 있거나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모집인, 영업사원(직장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납부)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면 된다.

공제사항 및 준비서류

공제 구분	기본요건	공제범위	필요서류(발급처)	유의사항
보험료공제	①보장성 보험 및 (생명, 상해, 자동차, 화재, 화재, 농축수협생명공제보험 등) ②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일 것 ③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본인이 납입한 것)	· 의료보험, 고용보험 · 연금보험 · 기타보험(연70만원 한도)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회사) 또는 납입영수증사본 · 계약기간(연70만원 본인 보관용)	·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공제	①연간 의료비 총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것 (둘, 한약, 치료비, 근시교정수술비, 스키장 이용료, 치과치료비(저작가능장전진사 침부 해당함))	· 연간 200만원 한도	· 의료비지출증서(의료기관) · 약품, 한약 구입 영수증(영수증에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 의사나 약사 서명 기재)	· 건강진단,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약품 등은 제외
교육비공제	①본인 학자금(대학원 제외) ②자녀, 형제자매의 학자금(유치원, 초, 중, 고) 등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급금 ③돌봄방, 어린이방 보육비(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전) ④취학전 자녀(만6세이하)의 음악, 미술학원비(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은 제외) ※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초, 중, 고-연150만원(1인당) · 유치원, 돌봄방 등-연100만원(1인당) · 대학생-연300만원(1인당)	· 교육비납입증명서(교육기관) 또는 납입영수증사본(본인보관) · 학원비는 학원교육비납입증명서	· 보충수업비, 교육자재대, 책값제외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원만 해당
개인연금저축공제	①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하는 상품 - 계약기간 만료일후 만55세이후 5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상품 ※ 은행, 투신사, 보험회사, 채신보험, 농수축협생명공제 등	· 당해년도 저축납입액×40/100(연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은행, 보험회사 등)	· 중도 해지시 저축가입일까지 불입액×4/100(연72,000원도 소급 추정함)
주택자금저축공제	①당해 주택부수소이거나 전용면적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또는 차입금(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차주변권 차입한것)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자 ②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③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내집마련주택저축(대출용은 해당부)	①저축불입액×40% ②월리금상환액×40% ①+②=연18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금융기관) · 직전연 주민등록지의 건물 등기부본(시, 군, 구청)	· 차입금상환액 공제는 96.1.1 이후 개설 불입금액 또는 주택취득, 입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부터 적용
기부금특별공제	①국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금, 국방헌금및유공훈장, 이재민수호금(수해연금 등) ②학교 및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종교단체(성당, 교회, 절 등), 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사, 노인복지법인 등에의 기부금 ③사립학교 기부금은 5%범위내에서 추가공제	①은 전액공제 ②는 근로소득금액×5% 이내금액	· 기부금(성금) 영수증(기부금접수단체), 납입영수증 사본(본인보관)	· 종교단체 기부금증서(기부금)의 경우 제외됨(기부자의 성명, 목적, 일자, 금액이 기재된 것)

공제 구분	기본요건	공제범위	필요서류(발급처)	유의사항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본인과 직계존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②9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해당 ③신용카드 사용액이 9월부터 11월까지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것 ※백화점카드 직불카드도 해당됨	·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 공제(100만원한도)	· 신용카드사용 금액확인서(신용카드업자)	· 현금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비용, 교육비, 세금, 각종공과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금액은 제외
주택자금이자소득공제	①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민을 소유한 세대주일 것 ②95.11.1-96.12.31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것(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 ③당해 주택취득과 직접 관련 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액일 것 ※백화점카드 직불카드도 해당됨	· 이자상환액×30% · 공제세액×20%는 농특세로 납부	· 주택소제관할 시, 군, 구 미분양 주택확인서(시, 군, 구청)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금융기관)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본	· 사용시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것(85㎡이하) 구성 · 건축부담금의 사업계 획승인을 얻은 관할시, 군, 구청장의 95.10.31 현재 미분양 주택을 확인한 주택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	①당해 저축액 채결 당시 월정금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②94.10.01이후 가입자로서 95.1.1이후 불입한 저축금액은 적용안됨 ③저축한도액은 월급여액 30%(12만원 한도)이며 상여금은 12월 이상부터 전액	· 저축금액×15%(산출세액한도)	· 납입영수증 사본(본인보관) 또는 재형기금납입증명서(금융기관)	· 공제대상은 연금제형 없음
기본공제	①모든 근로자 ②배우자 ③부양가족 · 근로자(배우자)의 직계존속 · 남:60세이상(1940.1.1이전 출생) · 여:55세이상(1945.1.1이전 출생) · 근로자(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양자로 20세이하인 자 · 근로자(배우자)의 형제자매 20세이하60세이상(여:55세)	· 가족1인당 연100만원 공제	· 주민등록등본(동거서) · 호적등본(별거시)(시, 군, 구청)	· 장애자는 연령제한 없음 ·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실제 부양하면 해당
추가공제	①기본공제대상이 65세이상(1935.1.1이전 출생) ②기본공제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③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1인당 연50만원	· 장애인수첩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65세이상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자녀 양육비 공제)
소수공제/추가공제	①기본공제대상 인원이 근로자 본인 1인일 경우 ②기본공제대상 인원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일 경우	①의 경우 연100만원 추가공제 ②의 경우 연50만원 추가공제		
표준공제	①보통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 ②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연60만원 공제		· 지출증빙없이 공제
근로소득공제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0%(1,200만원한도)		

생활정보

생활정보